



스님도 우리처럼 평범하네?

스님들도 군대를 갈까? 어처구니없는 궁금증 같지만 문득 궁금해지기도 한다. 물론 스님들도 군대에 간다. 스님이라고 해서 군대를 가지 않는다면 얼마나 스님들이 넘쳐날 것이다. 일반 사병으로 입대하는 스님도 있고 군종장교로 복무하는 스님들도 있다. 요즘은 동진출가하여 러서 하는 출가보다는 군대까지 마치고 출가하는 경우가 많아 스님 신분으로 군대에 가는 경우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다.

아무튼 스님과 군대는 궁합이 맞지 않아 보인다. 9년 동안 공군에서 군종장교 생활을 한 지장 스님(대원정사 주지)에게 군대는 어떤 곳이었을까? 남들은 군에 가기 위해 길었던 머리칼을 짧게 깎아야하지만 스님은 군에 가기 위해 오히려 머리카락을 길러야 하는 정반대의 길에서 '입대출가'의 새 길이 시작됐다. 군종장교는 제네바 협약에 따라 소총 등 살상무기를 휴대할 수 없다. 그렇지만 기초 군사훈련 기간에는 사격 체험도 하고 독도 법이나 유격 훈련도 받는다.

지장 스님은 <스님도 군대에 가나요>를 통해 12주 동안 기초 군사훈련을 받으며 겪은 갖은 에피소드들을 들려준다. 스님과 목사님, 신부님이 교육생 신분으로 어울려 어엿한 군종장교로 거듭나는 과정은 배꼽 잡는 해프닝과 진지한 고민과 대화로 뒤섞인다.

훈련소에서 내복 포장을 잘라 화투와 카드를 만드는 모습에는 군에 오기 전 종경반면 성직자와 수행자의 모습이 온갖 데 없다. 각자의 종교에서 법문을 들려줬던 이들이 종교행사 때는 법문을 듣는 입장이 된다. 또 독도법 훈련 시간에는 변호를 새겨둔 말뚝을 찾아야 하는데 낯잡을



스님도 군대 가나요 지장 스님 지음 | 클리어마인드 펴냄 | 1만원

잔다. 훈련장 주변에서 음료수를 파는 할머니가 다 가르쳐 주기 때문이다. 단, 할머니에게 음료수와 소주를 사야 한다. 휴식 시간에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는 "어찌다가 출가했는가?"와 "사모님은 어떻게 만나셨어요?"다.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자매님이 오셨는데..."라고 열애담을 시작하자 스님들은 목사님이 자매를 데리고 사는 줄 알았다. 한 지복속 세 종교인들만이 가질 수 있는 재밌는 이야기들이다.

똑같은 사람이기에 군대를 다녀 온 스님. 그러나 군대를 나와 다시 수행자의 위치로 돌아 온 뒤의 수행과 포

교 이야기들도 군대 이야기만큼이나 흥미롭고 진지하다. 서울 한 복판에 초의차명상원을 개원해 차명상으로 포교와 정진을 하고 있는 지장 스님은 "명상은 행복에 이르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고 말한다. 명상원에 오는 사람들의 이야기부터, 스님이 만나는 사람들과 일화를 통해 일상에서의 교훈을 가르쳐 준다. 명상 중 결혼에 대한 생각 때문에 괴롭다는 젊은 여성에게 스님은 '인생 관리의 포트폴리오'를 만들라고 한다. 한 가지 길만 매달리다 보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충격과 고통이 클 수도 있으니 여러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보고 조금씩 대책을 마련해 놓으면 크게 상심할 일이 없다는 것이다.

스님은 "명상을 할 수 있다면 자기의 생활과 함께 해야 한다"며 일상생활 속에서의 명상수행을 강조한다. 그리고 "행복하게 하는 것도 불행하게 하는 것도 결국은 나 자신"이라며 "나"와의 만남을 조인한다. <스님도 군대 가나요>는 스님을 조금 더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스님도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임을 깨닫게 하는 경험담이다.

이나는 기자 bohyung@buddhapia.com



'경의 내용' 이해 돕는 다양한 장치 마련

오늘은 십이분교(十二分教)에 관해서 이야기하겠다. 십이분교는 십이분경(十二分經), 또는 십이부경(十二部經)이라고도 하니, 모든 경전은 다음과 같은 십이개부분(十二箇部分)으로 이루어졌다는 이론인데 그 명상(名相)은 다음과 같다. 1.수다라(修多羅)=계경(契經) 법본(法本) 2.가야(祇夜)=응송(應頌) 3.화가라나(和伽羅那)=수기(授記) 4.가타(伽陀)=고기송(偈起頌) 5.니타나(尼陀那)=인연(因緣) 6.우타나(優陀那)=무문자설(無問自說) 7.이제목다가(伊帝目多伽)=본사(本事) 8.사타가(闍陀伽)=본생(本生) 9.비불약(毘佛略)=방광(方廣) 10.아부달마(阿浮達磨)=미증유(未曾有) 11.아파타나(阿波陀那)=비유(譬喻) 12.우바제사(優波提舍)=논의(論議)인데 고래로 이를 지송(持誦)하려는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십이분교송(十二分教頌)이 전해지고 있다.

계경응송여수기(契經應頌與授記) 계경과 응송, 그리고 수기요, 풍송자설급연기(講誦自說及緣起) 풍송과 자설, 그리고 연기라. 본사본생역방광(本事本生亦方廣) 본사와 본생과 또다시 방광이요, 미증비유병논의(未曾譬喻并論議) 미증유와 비유와 그리고 논의라. 첫째, 계경(契經)은 진리에 계합하는 경이란 뜻이다. 여기에 다시 두 종류가 있으니, 하나는 총상수다라(總相修多羅)요, 둘은 별상수다라(別相修多羅)이다.

총상수다라는 한 부질(部帙)의 경전을 통틀어 일컫는 단순명사다. 별상수다라는 하나의 경에서 어느 특별한 부분을 일컫는 말인데 주로 결경가(結經家)인 아난존자께서 앞과 뒤의 상황이나 대화를 연결시키기 위하여 결집할 때에 삽입하신 부분이 이에 속한다.

그래서 이 별상수다라를 경가절집(經家綴集)이라고도 하니, 경가(經家)란 아난존자(阿難尊者)를 가리키는 말이고, 절집(綴集)이란 흩어지지 않게 엮어맺는 뜻이니, 대화(對話)와 대화(對話)사이를 연결시켜, 보는 이의 이해를 도운 부분을 가리킨다.

우선 <은중경(應重經)>을 예로 든다. 그 첫머리에 [부처님께서 길 가의 마른 뼈 한 무더기를 보시자 절을 하셨다. 이를 본 아난존자는 여쭙었다.]

"부처님은 지존(至尊)이신데 어찌하여 이 지저분한 해골에다 절을 하십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너무 모르는구나. 이 뼈의 주인은 여러 생(生) 전(前)에 나의 부모였느니라. 부모의 은혜는 하늘보다 높아서(하락)."

이 인용문 중, []안의 것이 이른바 별상수다라니, 아난이 결경시(結經時)에 절경당시(說經當時)의 정상(情狀)을 소개한 것이요, " 안의 것은 대화의 내용인 동시에 이것이 진짜 경인데 만일 이 대화의 전후정상(前後情狀)을 소개하지 않고 단박에 "부처님은 지존(至尊)이신데..." 하였더라면 그 경을 읽는 이가 생각하기를 "이게 느닷없이 무슨 소리야" 하면서 아무것도 얻는 바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별상수다라를 경전구성의 한 부분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둘째, 응송(應頌)은 우리말로로는 상응(應)하게 송(頌)함이니, 이미 설하신 경의 취지와 꼭 맞는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 경을 설하시다가 적당한 곳에서 끊고, 이미 설하신 경의 요지(要旨)를 추려서 운문(韻文)형식으로 읊어놓으신 것이니, 첫째는 이미 설하신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기 위함 이요, 둘째는 후인들이 기억하기 쉽게 하기 위함이다.

셋째, 수기(授記)는 미래에 닦아올 일을 예언하신 것으로서, 기별(記別)이라고도 하니, 첫째는 상수제자(常隨弟子)들의 죽음이거나 미래에 관한 예언(豫言)이요, 둘째는 보살들이 장차 성불할 것(時期 因緣等)을 예언하신 부분이다.

넷째, 고기송(偈起頌)은 이미 말씀하신 경의(經義)를 추려서 송(頌)한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운문으로 경을 설하신 부분이다. 이것을 풍송(誦誦)이라고도 하니, 첫째는 기억하기 쉽게 하기 위함이고, 둘째는 운문(韻文)을 좋아하는 이를 위하기 때문이다.(계속)

본선사 조실, 동국역경원장

이 연재를 읽으시고 경전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은 필자인 월운 스님께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31)527-1954.

누구나 쉽게 이해 할 수 있는 고전 시리즈



알짜 고전 시리즈 - 명언과 역사로 보는 논어 4권 중국공자기념회 기획 | 남종진 옮김 | 다산미디어 펴냄 | 각8000원

답은 것으로, 공자에 대해 가장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책이라고 평가받고 있다. <논어>의 명언 49구를 선별해

중국고전의 교과서 <논어> <맹자> <도덕경> <주역> <시경>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한 알짜 고전 시리즈 5권이 출판됐다. 이번 시리즈는 중국공자기념회의 기획으로 다수의 학자들이 참여해 편찬된 <선진경전 지혜명언고사총서>를 번역한 것이다. 각 저서는 예전부터 널리 알려진 구절을 선별 수록하고 그에 맞는 예화(例話)를 덧붙여 선철들의 빛나는 지혜를 담았다.

시리즈 5권 가운데 공자의 <논어>는 공자가 제자 등 당시 사람들과 문답한 내용과 제자들이 서로 문답한 내용을

풀이했다. <맹자>는 중국 고대의 주요한 유가(儒家) 경전의 하나로 중국의 대표적 철학자 맹자의 명언29구를 쉽게 설명하고, 그의 제자 만장, 공손추 등이 언급한 내용을 담았다. 맹자는 "지금 세상에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는가"라는 역사적 사명감을 갖고 인의를 밝히는 한편, 민생을 동정하고 폭정을 비판하는 등 다시 신중 계층 사상의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면모를 보여준 인물이다.

<도덕경>은 도교에서 신봉하는 주요 경전으로, 당나라 때에는 <도덕진경>으로 받아들여진 노자의 저서로 철학사 25구를 주었다. 그의 시는 후세의 철학, 문학, 도덕, 정치 등에 두루 영향을 줌으로써 정신문화의 이론적 원전(元典)이었다.

<주역(周易)>은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문헌 가운데 하나로, 본래 짐을 치던 것에서 비롯됐다. <주역>에 내재된 전체적 사유 체계, 원리는 우리에게 '어떻게 생명을 편안하게 하고 외부의 세상에 대처할 것인가'를 일깨워주는 인생철학을 제시한다. <주역>의 명언 33구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이야기를 쉽게 해설했다.

<시경>은 기원전 11세기부터 기원전 6세기에 걸쳐 중국 섬서(陝西), 산서(山西), 산둥(山東) 등에서 만들어진 작품을 담은 중국 최초의 시가집(詩歌集)으로 중국 문화창작의 원천이다. 중국 사람들의 혼인과 애정, 생활상을 담은 작품과 상고시대 신화와 영웅사적을 노래한 작품 등을 싣고 명언 중 39구를 선정해 담았다.

이나는 기자

자신을 바로 보는 힘



관독일기(觀讀日記) 이지누 지음 | 호미 펴냄 | 1만1000원

자신의 자침인 잠경(儆銘)으로 스스로를 경계하라.

선불교와 한국 철학이라는 세 폭지점을 사유 근거로 삼아 하루하루 지속되는 긴장의 기록을 담은 <관독일기>다. 2007년 음력 9월 9일 중앙절부터 남기 기록으로 우리 문화를 섬세히 바라본 저자 스스로의 마음 다스림을 독서를 통해 구현했다.

저자는 "행암 이덕무의 <관독일기>를 읽으며 느꼈던 감동과 부끄러움을 떨치지 못해 제목과 방식을 그대로 본뒀다"고 밝힌다. 주로 조선시대 선비들이 스스로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 쓴 잠과 명에 관한 글을 읽고 그 뜻을 마음에 새긴 것을 따랐다.

저자의 일기는 지난해로 거슬러 올라간다. 맑았다 밤 늦게부터 비가 내리더니 새벽에 눈이 내리던 11월 20일이다. 선운사 동불암 마애불에 대한 글을 쓰던 저자는 소리 없이 내리던 눈을 바라보며 순암(順菴) 안장복 선생의 '육잠(六箴)'을 읽으며 마음을 달랠다. '선(善) 보기를 반드시 밝게 하고 악(惡) 보기를 소경처럼 하라. 바르지 못한 빛깔은 사람의 마음을 현혹시키는 법, 너의 눈을 거두어 밖으로 치닫게 하지 마라'는 순암의 마음에 감탄한다.

가연숙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이름다운 마무리	법정	마음의 숲
2	안젠가 이 세상에 없을 당신을 사랑합니다	월호	마음의 숲
3	스님도 군대 가나요	지장	클리어마인드
4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월호	불광출판사
5	성철스님 회두참선법	원택	김영사
6	이와 같이 살았으면	무비	영화실
7	아발로키테슈와라, 당신은 나의 연인	월호	운주사
8	위없이 심히 깊은 미묘법이며	김일수	도피인사
9	물앞의 잣나무	정찬주	미술하우스
10	행복한 사람들	김천	허안연꽃

*출사순편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수제화 고무신코 만행화

상표등록 614981호, 디자인등록 0407120호, 발명특허 0554383호

문의 및 주문전화 : 02) 733-5715, 011-9000-5715

입금계좌 : 농협 063-12-250427 (구자인) 합장

본사, 전시장 : 서울 종로구 공평동 143번지 402호 (종각역 2번 출구 100m거리)

NAVER

통합검색 만행화 검색

인터넷쇼핑몰 만행화를 검색해 보세요

최고의 선물

방한용털신

• 가격 : 6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 검정

조각무명

• 가격 : 12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 자연색

특무명

• 가격 : 90,000원
• 규격 : 220-255mm
• 색상 : 회색, 검정

3-1편

• 가격 : 8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 검정

사계절단화

• 풍산동 99%

지압감창 풍산동 99%

발명특허원41435

• 가격 : 15,000원